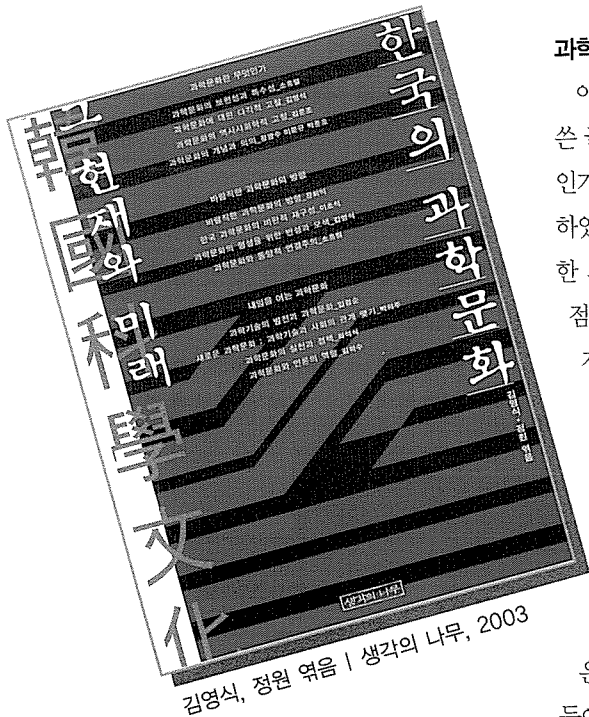


# 한국의 과학문화, 그 현재와 미래



## 과학문화의 정체

이 책은 13명의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언론학, 그리고 과학정책가들이 쓴 글을 모은 것으로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인 '과학문화란 무엇인가'에는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과학문화'의 학술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모두가 과학문화라는 개념에 대한 혼란을 지적하면서도, 그 정확한 의미에 상관없이 현대 사회에서 과학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소흥렬 교수는 과학문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 당위적 요청”이라면서, 과학기술문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과학문화 창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영식 교수는 “과학문화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과학문화의 부재가 인문학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김문조 교수는 “오늘날의 문화현상에서 과학기술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로서의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광수 교수 등은 “과학적 지식과 그것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과 실행 등이 더해져서 생활양식의 일부로 승화될 때에야 비로소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고 내재된 가치를 가진 문화로서의 과학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과** 학과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는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공계 기피’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인문학자들에 의한 ‘과학 문화’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 과학문화의 발전 방향

제2부의 ‘바람직한 과학문화의 방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과학문화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반성을 담았다. 장희익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과학 자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오늘의 과학기술문명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해야만 하며, 이를 위하여 문화적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학제적 연구와 협동, 올바른 시민의식의 고양, 그리고 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초식 교수는 ‘문화 전반의 과학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문화화’ 작업을 통해서 바람직한 한국인으로서의 ‘과학 문화인 운동’ 전개를 주장하였다. 김영식 교수는 지나치게 실용적이고功利주의적인 과학관을 비판하고, 과학을 포함한 문화 전체의 착실한 발전이 없는 과학만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쾌하게 지적하였다. 소흥렬 교수는 서구적인 원자주의와 환원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동양의

문화풍토와 공간을 토양으로 동양적 연결주의와 수용주의 문화를 받아들여 '제3의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 내일을 향한 과제

제3부의 '내일을 여는 과학문화'에서는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담았다. 임경순 교수는 이공계 기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과학문화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박물관 등을 통한 과학대중화 운동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박희주 교수는 과학과 기술을 부국강병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소개함으로써 파생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현대의 과학과 기술이 원천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선에서 과학기술과 대중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 홍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과학 정책을 직접 담당하였던 최석식 실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문화 정착

을 위하여 과학문화 활동의 주체와 매체를 육성하고, 대중적 관심이 높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김학수 교수는 언론매체와 과학기술 사이의 간접적 연결고리인 '과학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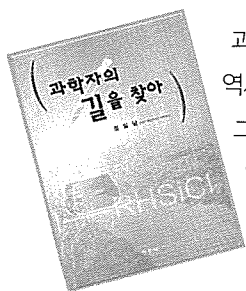
이 책은 과학과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과학문화의 정착과 보급에 힘써왔던 우리 인문학자들의 과학에 대한 진솔한 소회(所懷)를 담고 있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하루바삐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서 과학이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과 기술이 소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제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인문학을 향해 화해의 걸음을 시작할 때이다. **SD**

글\_이덕환 서강대 교수 duckhwan@sogang.ac.kr

BOOK

## 과학자의 길을 찾아

정일남 지음, 설우사, 2003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사회의 핵심은 역시 과학자와 기술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극심한 이공계 기피의 뿌리에는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한 '편견'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과학자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가진 영재였고,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개성을 가진 독특한 인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편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의 전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책은 '과학기술 입국'을 내세우면서 설립된 최초의

종합과학기술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평생을 규소 화학에 전념했던 정일남 박사가 아쉬운 정년을 맞이하면서 발간한 자서전이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과 베트남의 과학기술진흥메달을 받은 훌륭한 과학자인 정 박사는 1995년 「나의 지구촌 과학 여행」을 비롯해 몇 권의 여행기를 발간하기도 했다. 정 박사의 자서전은 어려웠던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의 꿈을 이루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담아낸 것으로 과학에 관심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게 될 우리 사회가 요구하던 역작임에 틀림이 없다.